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젠걸음'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기업 발디즈 협력체계 구축 노르망디 재활의학센터 프로그램 운영 도입 시찰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한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선도 및 차별화 전략 구축을 물론,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 기업인 발디즈(Valdys) 로스코프 센터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브 디아르(Yves Diard) 발디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치유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관계자들이 찾은 프랑스 서북부에 위치한 로스코프(Roscoff)는 1899

년 세계 최초 해양치유 요법이 시작된 지역이다.

이날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발디즈 기업은 1900년 두아르네즈(Douarnenez)에서 창설해 로스코프 해양치유 시설을 시작으로 포르니셰(Porniche), 생장드 몽츠(Saint-Jean-de-Monts) 지역의 탈라소 테라피를 인·출장하는 전문 해양치유 기업이다.

발디즈 로스코프 리조트에서는 해조류 마사지, 해수 수중 자전거, 수중 체조, 해수 미스트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당일, 주, 월 단위로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친환경 화장품·스킨케어

사업도 시작해 인근 지역은 물론 외국에서까지 고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프랑스는 천연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완도군은 지난해 해조류를 활용한 화장품을 해외 5개국에 수출한 바 있어 프랑스 화장품 시장에 우리나라 해조류 소재를 소개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유명 화장품 회사인 BCM(Bretagne Cosmétiques Marins)과 피토메르(Phytomer)를 방문했다.

BCM은 해조류를 원료로 화장품을 생산·제조하는 해양성 코스메틱 화장품 전문 회사로 탈리온(Thalion)이라는 글로벌 대표 스킨 브랜드를 갖고 있다.

피토메르는 1972년 설립된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품 브랜드로 해조류 육상



완도군이 최근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기업 발디즈(Valdys) 로스코프 센터에서 해양치유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양식을 통해 자체 연구소에서 제품 개발·친환경 생산 기법을 통해 스킨 전용 고급 해양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군은 완도에서 제품으로 개발된 화장품 10종과 해양치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 특화 자원 화장품 4종을 선보이며, 한국산 해조류를 활용하는 방안

지어진 고급 호텔을 1967년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활용한 재활센터로 전환해 운영 중인 근골격계 및 신경 병리 전문 센터다.

주로 관절 환자와 뇌 질환 환자가 주를 이루며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되는 해수과 해조류 분말을 활용한 관절 치료 전용 수영장이 있으며 지난해 4천명이 2만5천회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 기업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기술적 노하우를 전수받아 국내 최초로 운영 중인 완도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의 전문기관과 해양바이오 및 화장품 개발 등의 협력을 통한 완도 해양바이오산업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도=윤보현기자



영암F1 자동차 경주장 전경. <영암군 제공>

영암F1경주장, 10월 국제 드론 레이싱대회 열린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선정...국비 12억 확보

영암군이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 오는 10월 드론 레이싱대회를 개최한다.

6일 영암군에 따르면 전남도와 함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주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의 '드론 레이싱 국제 경기 개최' 분야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영암군은 오는 10월 12-13일, '2024 국제 DF-1 드론 레이싱대회'를 영암F1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한다.

드론 레이싱은 초고속성능 드론을 이용해 공중에서 펼쳐지는 경주로, 장애

물을 설치하고 정해진 코스에 따라 드론을 조종해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참가자가 승리하는 스포츠다.

경주에 참여한 선수는 FPV(First Person View) 고글을 쓰고 드론을 조종하며 손가락을 다룬다.

이 대회는 국제자동차경주연맹(FIA)이 1등급으로 판정한 국내 유일의 영암F1경주장에서 열린다.

특히 모터스포츠 경기장에서 색다른 레이싱을 볼 수 있다는 점과 F1경주장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 등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은 이번 공모 선정과 대회 개

최저 기준 모터스포츠 축제와 차세대 첨단 드론 레이싱을 연계해 4차산업기술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드론 레이싱대회에 총 16억원을 투입해 영암군만의 특성을 담은 첨단 드론 레이싱 트랙과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한 홍보 모델 개발도 착수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F1경주장이 세계적인 규모의 드론 레이싱대회 유치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오는 10월 대회에 자동차 경주와 드론 레이싱을 융합해 세계의 이색 축제·전국 유일의 특별한 경주로 도약해 영암군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강진 푸소(FU-SO)운영...최대 5천300만원 지원

신축·리모델링·증축·편의시설까지 종합 지원

강진군이 지역에 정착해 푸소(FU-SO) 체험을 운영하는 농가에 최대 5천300만원을 지원한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푸소 체험은 강진군 고유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전라도 사투리 '덜어내다'에서 착안했다.

특히 농가에 머물면서 각종 농어촌 체험을 할 수 있고,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군은 늘어나는 푸소 체험 수요에 대응해 푸소 운영 농가를 확대하고,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푸소 운영(예정)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2천만원 대비 3천만원 가량 대폭 상승했다.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푸소 운영에 필요한 가전·집기·장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이달 22일까지 강진군청 문화관광실에 방문하면 되고, 토지·주택 등을 소유한 자가 신청해야 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친 후 위원회를 통해 오는 5월까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년 이상 푸소를 운영해야 하며,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사업이 완료된 후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 요건을 갖추고 푸소 체험 전용 객실·화장실을 확보하는 등 신청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푸소팀(061-430-3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정영록기자

나주시, 초등생 입학축하금 지급

나주사랑상품권 10만원

나주시가 생애 첫 학교생활을 시작한 초등학생 1학년 학생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2024년도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다.

학생 1인당 나주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류 또는 모바일 정책 수단으로 오는 5월부터 지급한다.

입학축하금은 학용품, 산발, 책가방 구매 등 자녀 입학에 필요한 교육 경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최초 입학생이다. 오

는 4월까지 취학 아동의 학부모 또는 양육자가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1천44명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축하금을 지원받았다.

윤병태 시장은 "학교생활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지역 아동들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입학축하금이 취학 초기에 필요한 학용품 구매 등에 요긴하게 쓰이고,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영수기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참여 단체 모집

영광군, 20인 이상 사회단체 대상...20일까지 신청

영광군은 6일 "예산 운영에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024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하고 영광군 소재 20인 이상 사회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지방예산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의 의의 ▲운영계획, 우수사례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으로 오는 7-8월에 있을 주민참여예산 접수 시 유의사항과 신청인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영광=김동규기자

목포청소년문화센터, 3년 연속 보훈테마활동

청소년 역사·의식 함양·보훈 정신 계승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는 6일 "2022-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국가보훈부 '보훈 테마활동(사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훈 테마활동' 공모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주고 선양하며,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공모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33인 영웅홍보대사들의 보훈이야기 H-STORY'라는 주제로 33인의 청소년 영웅홍보대사들이 37가지 테마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HISTORY는 지역사회 내 독립

운 이야기를 듣는 '사람책 이야기', 영웅재과점, 보훈굿즈제작, 우리들의 영웅증 제작 등 세대가 공감하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HERE ALWAYS REMEMBER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청소년보훈문화제를 진행함으로써 호국보훈에 대한 분위기를 고취할 계획이다. /목포=정혜선기자



'폐교위기' 신안 흑산초 흥도분교...신입생 6명 입학

흥도마을 주민 환영 뜻 담아 물품 후원도

신안군이 추진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흑산초등학교 흥도분교에 6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폐교위기에 벗어났다.

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4일 흑산초등학교 흥도분교에서 신안교육지원청 민방기 교육장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개최했다. (사진) 흑산초등학교 흥도분교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폐교 위기에 처했지만 올해 3기 6명(학부모 포함 9명)의 학생이 입학(전학)해 입학식을 추진하게 됐다.

학교 중수집기 박흥도(무안) 씨는 199년 흥도국민학교 개교 이래 흥도분교 제(제) 졸업생 일동' 문구가 새겨진 종을 기증하며 "이 학교 종이 흥도분교의 학

생들에게 매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길 바라는 의미로 기증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입학식에 참석한 흥도마을 주민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만 보아도 힘이 난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학교마저 없으면 시골 마을에 무

